

교회 절기에 대하여...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생활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과 영적 호흡을 통하여 무리무리 성장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언제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며, 성도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늘 생각하시면서 신앙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 오면서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절기로는 성탄절이 있겠지요. 또 부활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과 맥추 감사절이 있습니다.

☞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관계에 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을 전해 줍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인 자기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말에 놀라지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2.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로마 황제의 호적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호적 하러 갔었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때가 기원 전(BC) 4년이었습니다.

3. 동방박사와 양치기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경배를 하며,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 드렸습니다. 온 인류의 메시야가 오시는 것을 축하한 것은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이나 소의 받던 양치기 목동들뿐이었습니다.

4. 성탄절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여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교회에서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한 이웃을 찾아 위로해 주고, 음악 예배로써 축하 행사를 합니다. 성탄절은 교인들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축하하는 경축절이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먼 곳에서 찾아와 참으로 귀중한 선물을 드렸던 것을 기억 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축하 절기입니다.

☞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 주일 직전의 일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부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는데, 끝에 납덩어리가 박힌 채찍으로 수없이 얻어맞고 침 뱀음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므로써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 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처형장으로 끌려가셔서 9시경

에 십자가에 못박히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아 매다는 극악한 처형 방법으로서 흉악범들에게만 쓰여지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2. 예수님은 사흘 뒤인 주일(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신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가르치기도 하였고 음식을 함께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십 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여러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부활절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복음(소망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웃을 구원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맥추 감사절은 봄 추수를 기념하여 감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1.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맥, 소맥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해방 기념일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연중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2. 맥추절은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며, 예수님이 죽으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봄 곡식을 거두어들인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영혼을 거두어들이는 절기가 된 것이며, 율법을 주신 절기가 복음을 주신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신령한 의미를 가진 감사절입니다.

3.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며 가장 크게 찬송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맥추 감사절에는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여 드리는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 생명 되는 복음을 심어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영적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 추수 감사절은 유대인의 수장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수장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의 하나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초막절, 장막절)이 3대 절기인데, 수장절이란 모든 방면에서 수확된 것을 거두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곡식이 추수되어 창고에 수장되는 것처럼 성도 모두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2. 현대에 와서는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 전파되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개신교 신자들(청교도)은 천주교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1620년에 신대륙인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 땅에서 고생

하며 절반 이상의 희생자를 내면서 가을에 가서 첫 추수를 한 것과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을 축하하는 행사로부터 추수 감사절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세계로 널리 퍼져서 기독교인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3. 추수 감사절에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 년간 우리의 생업에서 수입을 얻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교회에서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켜져 온 역사가 있는 절기들이므로 절기를 의미 있게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용어 해설

- 호산나 -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 말로서, 예수님을 메시야(구원자)로 환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 이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 뛰며 부르짖는 환호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메시야를 열망하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군중들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태복음 21:9)
 이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바로 전 주일로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타예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기모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더 이상 무엇이 필요 할까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

"따릉릉~~", "따릉릉~~"

토요일 오후에...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어린이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더군요? 설교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입니다."

이상하다는 뜻이... 평소에 설교제목을 길게 쓰시던 목사님 때문에 한번 더 인쇄소 직원은 물어 보았다.

"그것 뿐입니까?"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목사님은 약간 늦게 도착하셔서

어제 준비한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서서 시작하려는데...

설교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딘가에 크게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목사님은 계속 이 제목을 몇 번씩 되 내이고 제쳤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눈물이 계속 흘러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그 어린이 예배는 온통 눈물 바다가 되어버렸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